80여 안건 하룻만에 뚝딱…‘부실심사’ 논란

광주시의회, 민간위탁 예산증액 등 19일 일괄처리

대부분 시예산 관련 안건… 꼼꼼한 진단·심의 필요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 예산증액 동의안 등 80여 건에 이르는 안건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하기로 해 ‘부실 심사’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어 폐회일인 25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 현안 청취, 심사보고서 작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4개 상임위별 활동은 개·폐회일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진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건은 오는 19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일반안건은 4개 상임위 통틀어 모두 85건으로, 이 중 81건(95%)이 19일 하루 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20건, 환경복지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23건, 교육문화위원회 18건 등이다.

교육문화위원회만 오는 19일 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4건, 20일 시교육청 소관 4건을 분리 심의할 뿐 나머지 상임위는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소관 부서 안건을 하루 동안 일괄처리한다.

최근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자·출연 동의안이 사전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우선 거치도록 하면서 안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센터 위탁예산 증액 동의안, 민주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시 예산과 관련된 사전심사가 많아 밀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동의안 등은 추후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만큼 꼼꼼한 진단과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 회기가 4일이지만 1일 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으로 진행돼 ‘불성실 임시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안건이 많아 부실 심의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회 전체, 또 상임위별 내부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장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17일 나주에 문을 열었다. <사진>그동안 물류센터는 수도권 등 소비층이 많은 곳에 건립됐는데, 생산지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2만9987㎡에, 건축면적 1만3644㎡ 규모로 건립됐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국비 139억원, 도비 69억5000만원, 시비 69억5000만원 등 모두 278억원을 들여 집배송장·저온저장고·선별포장·임대 사무실 등을 갖췄다.

물류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물류비 절감과 유통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건립됐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기능 등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소량 유통구조가 주류인 친환경농산물의 대량 거래 발판을 마련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친환경 농업의 정책 범위를 생산 중심에서 유통, 가공, 환경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완도에 해양치유단지

해수부 ‘실용화사업’ 선정

완도에 해양치유단지가 조성된다. 해양치유는 해양기후, 해수, 해니(泥), 해염(鹽), 해사(沙),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해양치유 실용화연구 협력사업’ 공모에서 완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를 해양관광산업의 대표 주자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한반도의 동서남해안 4곳을 선정해 해양치유 자원 발굴과 실용화 기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국비 35억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각 4억원을 들여 용역을 마무리한 뒤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완도군은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2022년까지 연차별로 국비 433억원, 지방비 454억원을 들여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 제품 생산 공정 확립과 산업화 모델 개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제품생산+R&D+일상+판매유통) 조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는 1126억원을 투자해 해조류 메디컬 제품 개발, 해양리조트 조성, 해양치유 전문병원 육성, 해양관광 개발 등에 나서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가운데 11개 시군이 응모했으며, 이 중 완도군을 비롯해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충남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전국 최대 생산지일 뿐 아니라,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배로 많고, 해수 표층수가 1등급이며, 국내 최대 난대림을 보유해 해양치유의 적지로 인정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으뜸서구 청렴 콘서트 17일 광주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으뜸서구 청렴 콘서트’에서 서구청 직원들과 서구주민들이 가을을 주제로 한 포크송을 따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청렴한 서구’를 주제로 청렴 서구를 널리 알리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2022년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개최

광주시와 한국조경학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 이사회(IFLA World Council)에서 2022년 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2022년 광주 대회에는 2000여명의 국내·외 조경분야 석학, 연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1992년 한국(서울, 경주)에서 29차 대회가 열린 이래 30년만에 광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인구의 증가와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파괴돼 가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조경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추구, 인류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48년 설립됐다.

총회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문화경관분과위원회(ISCCL)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충장로, 양림동, 푸른길, 무등산 남도피아, 소쇄원, 환벽당 등 한국 전통조경의 조경학적 인프라 답사 및 홍보를 통해 광주의 문화경관 인프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유치를 위해 한국조경학회, 광주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은 공동으로 유치대표단이 꾸려 지난 2016년 4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2016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2년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원가 얼마일까

시의회 원가공개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가 광주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원가를 공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반재신(민·북구1)의원과 김민종(국·광산4)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원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원가 공개 대상항목을 조례안에 담지 않았지만 수정 발의나 시행규칙을 통해 토지대금과 건축물 철거비, 대지조성 공사비, 건축공사비 등 직접 공사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비와 지질조사 및 문화재조사 비용 등 간접공사비 그리고 조세공과금과 금융비용,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등도 공개대상이다.

원가공개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행복주택 2개 단지 총 2400가구다. 산정 빛여울채 414가구, 농성 빛여울채 498가구, 주월 빛여울채 298가구, 광주역 행복주책 700가구, 서림마을 행복주택 500가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개 시기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때다. 다만, 원가정보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시장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반재신 의원은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원가공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조례안 제정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등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광산구청장 프랑스 사회혁신 포럼 참석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18일부터 프랑스와 덴마크를 차례로 방문한다. 유럽 사회적경제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 사회적경제계와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이번 방문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이하 ‘RTES’) 초청에 따른 것이다.

민 구청장은 RTES가 프랑스 니오르시에서 19일부터(이하 현지시간) 개최하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사회혁신 전국 포럼’에 참석한다. 이곳에서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가해 한국 사회적경제 잠재력을 소개하고, RTES와 상호교류협약을 맺는다. 이와 함께 뉴아키텐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을 만나 농업과 문화사업 활로도 모색한다.

민 구청장은 또 21일부터서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한다. 코펜하겐에서 민 구청장은 스반홀름 공동체 그리고 주택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찾아 생활공동체,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 주택문제 해결 방안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한편 RTES는 프랑스 115개 지방정부로 구성했으며,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